



難題解決은 處方·分析·調整 徹底히 使와 勞·割引店·災害·1100 Pallet 等

順天鄉大學校 經營學科
教授·經營學博士 尹文奎

☞ 칼럼筆陣 ☞

- 尹文奎 (순천향대학교 교수·경영학 박사) 21·24 號
- 趙炳默 (강원대학교 교수·농학박사) 22·25 號
- 安憲榮 (본지 편집인·한국포장개발연구원 정책위원장) 23·26 號

1. 使는 勞와 共存共生길 찾아야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물을 따라 가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다.

전자는 무조건 남이 하나까 자기 중심없이 시류(時流)에 편승, 잘되면 자기의 현명한 탓이고 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이며, 후자는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삶의 창조를 위해 거친 물살을 헤쳐 나가는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후자 보다는 전자가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볼 때, 지도자(정치가, 경영자)의 규범과 역할이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실의에 빠져 있는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의욕을 주는 것이 그들의 책무(責務)이기 때문이다.

IMF한파로 너나 할것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라는 미명아래 무조건 정리해고만이 살길이다 라고 하는 경영자의 사고는 죽은 물고기의 형태이다. 기업(使)은 살고 사람(勞)은 죽어도 좋다는 말인가? 使가 勞의 입장이 된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 오히려 기업을 불철하게 만든 무능하고 이기적인 경영자의 책임이 더 큰 것이 아닐까? 勞 역시 문제는 많다. 급변하는 시대에 평소 자기계발 없이 무사안일한 자세는 금물이다.

기업은 냉엄하며 자선단체가 아니다. 오히려 인재(人材)를 붙들려고 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이다.

어려울 때 일수록 勞, 使 모두 共存共生 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오늘의 기업을 책임받고 있는 살아있는 경영

자의 책무라고 본다. 어려운 현실을 勞에게 투명하게 호소하고 설득시키면서 共生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로마로 가는 길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똑같은 업종이면서도 H자동차와 D자동차의 대처방안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의미가 다르다.

2. 월마트와 E마트 賢명한 制動 必要

『월마트』와 『E마트』의 경쟁을 볼 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우리 속담이 생각난다. 가뜰이나 불경기에 수 많은 중소형 유통업체들이 도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월마트』는 당초 수입물품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물류센터(물류거점)로 존립, 유통업체로서 한국시장 침투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저가 공세를 취하고 있다. 『E마트』는 할인점으로 성공을 거둔 순수 국내 재벌 유통업체로서 중국시장까지 진출한 대형 유통업체이며, 국내 시장의 잠식을 방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대항하고 있다. 양자 모두 소비자에게 저가공급이라는 명분으로 취약한 한국의 유통시장을 일방적으로 교란시키고 있다. 더욱이 제조업까지 지배하게 되는 우려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어, 그 파장과 피해는 클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외곽에 자리잡고 있는 이들 업체는 바겐세일도 아닌 기한없는 싸움으로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서울에서 까지 원정쇼핑으로 교통대란, 충동구매 등의 불건전한 소비행동을 부추기고 있다. 본래 마켓팅에서는 가격 경쟁을 가리켜 『피의 경쟁』이라고 말한다. 결국은 모두가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제조업과 소비자는 양 업체의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한다. 목전의 조그마한 이익 보다는 건전한 유통질서와 공정한 상거래의 확립을 위해 제조업은 물품지원의 재고(再考), 소비자는 구매행동의 자제, 정부는 불공정거래의 제통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3. 災害住宅 根本 對策을

자연을 혹사시키고 환경을 파괴시킨 대가로 자연의 보복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기상이변은 한국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이번 수해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따뜻한 동포애(수해모금)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피해를 심하게 입은 지역과 상습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지역, 앞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분류하여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 재벌기업은 대부분 건설업체를 갖고 있다. 피해지역은 전국에 걸쳐 발생되었기 때문에 경기권, 충청권, 강원권, 전라권, 경상권,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각기 건설업체에게 할당시켜 견고한 국민주식 아파트를 건설케 한다. 이러한 지역은 응급조치로만 임시 처방하지 말고 도시계획을 재개발하여 피해주민에게는 희망을 주고, 건설업체에게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정부는 주택은행을 통해 장기저리의 융자조건으로 피해주민 모두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DL다. 그동안 정경유착의 끈으로 실추된 정치인, 기업인 모두는 진정한 민의(民意)가 무엇인지를 자성(自省)해야 하고 경제난국을 자초한 일련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말고 사회와 국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良識)있는 행동과 규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4. 包裝·物流 Mind 轉換, 計劃·施行·分析·調整 徹底히

IMF 이전만 해도 물류에 관한 관심과 투자가 왕성하였으나, 효과는 기대이하라는 평가다.

서서히 경제가 제자리로 복원 성장세로 재기 되는 시기에 있어, 이제까지의 포장·물류에 관한 무이론(無理論), 무원칙(無原則)을 탈피, 일대 사고 전환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98. 6. 30일 부터 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지침 제11조의 포장 및 포장성분중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 등 중금속의 총 농도·규제 발효대책도 세워야 한다. IMF사태의 해결 Schedule Plan에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교환삼아 EU를 비롯한 미국등의 포장·물류관련 무역규제에 대하여 한치의 착오도 없이 만반의 대책을 세워 시행해 가야 할 것이다.

그 대책 수립에는 IMF의 쓰라린 오류를 거울삼아 ①문제과제의 성결 파악 ② 발생원인 ③ 우리나라 입장과 타외국의 입장에서 본 문제점 ④ 문제점의 해결방안 ⑤ 해결방안의 제1안, 제2안 제3안 작성 ⑥ 제1안부터 시행하면서 그 결과 체크와 파급영향 분석 ⑦ 제1안 시행상 문제되는 점의 제2안, 또는 제3안에서 보완 또는 그 전개방향이 목적하는 바와 다를 때에는 대책안의 수정 ⑧ 대책안 시행결과가 가져올 문제점과 이의 합리화 대책 ⑨ 대책안 시행결과가 연관산업, 소비자, 국가에 불리가 없는지 여부 Check ⑩ 대책안의 단기적 또는 장기적 효율성 분석 등 계획, 시행, 분석, 조정을 철저히 해 가야 한다.

5. 1100×1100 Pallet, 貨車크기 맞아야 物流合理化 可能

정부(건설교통부)는 우리나라 Pallet 표준치수를 1100×1100mm로 결정할지는 오래다. 그간 정부에서도 이러한 표준 Pallet가 물류과정에서 적용되어, 증적(增積)의 효과로 수송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금 지급 등 많은 노력을 해온적은 사실이나,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방법만으로 물류합리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구두선에 불과하다고 본다.

Pallet 1100×1100이 사용되려면, 우선 화물자동차의 하대나 기차의 화물적재함의 세로×가로 치수가 1100의 공배수로 통일되어야 하며, Pallet치수와 하대치수의 Modul화 치수에 맞는 포장화물에 대한 운송비 할인제도 등의 채택이 시급히 요망된다.